화로 국토 장엄해야"



◇본환스님은 95세의 고령에도 홍콩, 대만, 마카오 등지를 오가며 법문과 선칠을 지도하고 있다. 홍콩 정치인들의 영접을 받는 장면(사진위). 중국 임제선사의 선당(禪堂) 건립불사에 참석 휘호를 쓰고 있는 본환스님(오른쪽).



본환 스님은

1907년 9월 21일 호북성(湖北省) 신주현(新洲縣)에서 출생한 본환 스님은 1930년 1월 보은사(報恩寺) 전성(傳聖)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같은 해 4월 초파일 보통사(寶通寺)에서 지송(持松) 대화상을 계사로 수계했다. 이 해 7월 양주 고민사(高旻寺)에서 대과(來果) 노화상을 찾아 뵙고 은사로 모셨는데, 얼마 뒤 의발(衣鉢)을 전수받았다.

본환 스님은 1934년 생사를 건 13회의 선칠(禪七)을 연속으로 일시, 91일간 잠을 자지 않은 채 용맹정진했다. 48 년 11월 남화사에서, 본환 스님은 당대 최고의 고승인 허운 노화상의 법을 이어 임제종 제 44대 전인(傳人)이 됐다.

1980년부터 별전선사, 광효사, 보은사, 정각선사, 연개사, 대웅사 등 7 곳의 선종 거찰을 중창한 스님은 현재 95세의 고령에도, 홍콩에서 정기적으로 법문하거나 선칠을 지도하는 등 중생교화를 쉬지 않고 있다.

13회 연속 禪七 · 경전 20권 20만자 血書로 사경
300km를 3보1배…65일만에 오대산 성지 참배

로 칭송받게 되었다. 스님은 91일간의 '생사 선칠'을 마친 이후에도 염불, 좌선과 함께 〈화엄경〉 〈능엄경〉 등 내전은 물론 4서와 5경 등 외전을 열독해 불법 및 세간법의 교의를 통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초범입진(超凡入眞)의 경계를 나타냈다고 한다. 동시에 스님은 율학을 깊이 연구하고 엄격히 지켜 사표가 되었으며 래과 노화상의 인가를 받은 후, 40은 나이에 고민사의 유나(維那 : 사찰 안의 사무적인 일을 총괄하여 맡아보는 직책)를 맡게 됐다.

1937년 1월, 30세에 스님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할 것을 발원했다. 양주에서부터 무한을 거쳐 기차를 타고 하북성 정현에 이르렀다. 정현에서 오대산에 이르는 300㎞를 그는 3보1배로 나아가 65일만인 3월 3일, 오대산 성지를 참배하게 됐다. 계속해서 3보1배로 오대산의 5개 정상을 참배했을 때는 무릎에 종기가 나고, 무릎이 닳아 상처가 덧났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희열로 충만했다. 삼보일배의 고행은 '그 마음을 항복받는(降伏其心)' 의미가 있었다. '항복기심'이란 우리의 고통과 번뇌, 무명(無明), 교만, 질시, 시비 등 일체의 그릇된 생각을 항복시키자는 것.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일체의 번뇌망상을 제거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자성을 찾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42년 10월에서부터 45년 7월까지, 본환 스님은 서현사(棲賢寺)에서 3년동안 폐관(閉關)하며 경전을 열람했다. 또 항일전쟁으로 사망한 1천여 망자를 위해 천도재를 봉행했으며, 혈서로 〈화엄경〉 〈지장경〉 등 20권, 20여 만자를 혈서(血書)로 옮겼다.

이런 '자혈사경(刺血寫經)'의 원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스님의 원력은 부처님 은혜, 중생의 은혜, 무시이래의 일체 부모님들의 은혜에 보답해 억겁동안 지은 5역10악의 죄악을 소멸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 동시에 본환 스님이 정진시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강조하는 '방하착(放下着 ; 집착을 버리는)' 공부와도 연관이 있었다. 목숨마저 버릴 정도의 '방하착'이 아니고서는 깨달음이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스님은 경전의 말씀을 들어 거듭 몸과 마음의 '방하착'을 당부하신다.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아름다운 꽃을 부처님께 공양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꽃을 버리라고 명하시자, 제자가 바로 꽃을 버렸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다시 몸(色身)을 버리라고 하셨지만, 제자는 어떻게 버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또다시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자, 제자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음의 집착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찌 제자가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함에 있어, 반드시 몸과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48년 7월, 본환 스님은 근대의 고승 허운 노화상의 요청으로 광동 남화사로 갔다. 남화사는 육조혜능 스님이 남종(南宗) 선법을 일으킨 도량으로, 뒤에 임제(臨濟), 조동(曹洞), 운문(雲門), 법안(法眼) 등 5종을 형성해 선종의 '조정(祖庭)'으로 불린다.

11년전부터 허운 대사의 가르침을 받은 본환 스님은, 이 해 11월 허운 노화상의 법을 이어 임제종 제 44대 전인(傳人)이 됐다. 다음 해 4월 초파일, 본환 스님은 남화사 방장에 취임했다.

> "'광폭한 시기' 감옥없었다면 20년간 홍법이생 불사 불가"

남화사 방장으로서 선풍을 드날리던 본환 스님은 51세때인 58년 7월부터 1980년 명예회복을 이룰 때까지 22년 동안이나 옥고(獄苦)를 치르게 됐다. 문화혁명기간(1966~76), 노화상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소중한 일생이 옥중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옥중의 시간들은 본환 스님에겐 더없이 좋은 수행기간이었다. 출가인에게는 처처(處處)가 도량이니, 그곳 역시 최고의 수행처였던 셈이다.

출옥후 1980년 3월, 스님은 73세의 고령으로 광동성 인화현정부의 요청으로 단하산 별전선사(別傳禪寺)의 복원을 책임지게 됐다. 이후 스님은 광효사, 홍법사, 보은사, 정각선사, 연개사, 대웅사 등 모두 7개의 선종 거찰을 중흥시켰는데, 건축면적이 무려 6만여 평방미터에 달했다. 본환 스님은 현재 95세의 고령에도, 홍콩에서 정기적으로 강경을 하는 등 중생교화를 쉬지 않고 있다. 중국 선종을 대표하는 임제종의 대종사로서의 본환 스님의 삶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위한 철저한 실천행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스님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일생은 말없는 법문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 설한 경율론 삼장(三藏) 12부(部)의 법문의 기저에는 '행(行)' 자가 깔려있습니다. 우리가 범부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것도 행이요, 성인으로부터 쿠처가 되는 것도 행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어떤 일도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제자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그것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교화시켜 국토를 장엄하는 데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일미스님



"중이 글공부하면 신세 망치는 줄 알아라"

"중이 산속에 들어가 공부해야지 무슨 세속공부?"…

학문하는 스님치고 주위에서 이런 말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불가에서는 학문하는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거니와 승려가 학교에 적을 둔다는 것은 세속으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치부돼 왔다. 요즘은 불교학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스님들이 학문하는 것에 대해 이해도가 커졌지만,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색즉시공(色卽是空), 생사 즉 열반, 번뇌 즉 보리 등 세속과 불계의 이분법적 태도를 배제해야 하는 불이법(不二法)을 내세우면서도 이론만큼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선(禪)과 교(敎)를 병립하는 것이 완전한 수행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표방하다 보니 자연히 선객들은 문자를 멀리하고, 학문하는 스님들은 도시생활 속에서 포교까지 겸하다보니 선교의 병립이 원만하지 못하다. '불립문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손바닥 위에 펴 보일 수도, 문자로 설명할 수도 없음을 말한다. 이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달의 대변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손가락이라는 매개체(방편)가 필요하다. 이 방편에 대한 체계를 이룩하는 일이 불교학이고 선학이다. 즉 이론은 현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듯, 부처님의 마음은 문자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미국인 현각스님이 쓴 〈만행〉이라는 책의 부제가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이다. 한국사회가 학벌 지향주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제목을 붙인 것 같아 조금 씁쓸하기도 하다. 어쨌든 세계 일류석학들만이 모인다는 미국 하버드, 그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는 스님이 바로 비구 일미스님이다. 스님은 현재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 분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학기부터 박사과정에 들어간다.

요 근래 서양에서도 불교신자가 점점 늘고 있고, 참선수행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여러 나라의 불교수행이 유입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교 서적 발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서구인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일미스님은 앞으로 "불교를 주축으로 타종교와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뉴욕에 불교학연구소를 세워 수행전문기관인 젠(Zen)센터를 병행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스님은 최근 띄운 메일에서 "그간 너무 고생해서 머리 한가운데로 중부고속도로보다 더 큰 미끌미끌한 아스팔트 도로가 생겼고, 조금 있으면 해안도로가 생길지도… 스님들!!! 제발 비무장지대의 풀처럼 저에게도 풍성한 산림(山林)이 자리잡기를 각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도 올려 주십시오. 각인 법사님처럼 사막에 풀 나듯한 머리는 싫거든요"했다. 상상이 갈 것이다. 30대 중반밖에 안된 스님 머리가 벌써 허허벌판이 되었다니… 웃어 넘길 말이지만, 일미스님의 공부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학부 3학년 때, 나는 스님과 일본어 책자로 매일 2~3 페이지씩 스터디를 한 적이 있다. 매일 하다보니 쉽지는 않았다. 스님은 전날, 공부한 문장전체를 완전히 외웠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능력이 감당이 안되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일미스님의 끊임없는 노력탓인지 일본 용곡대학 교환학생으로

하바드大서 비교종교학 공부
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재목

발탁되기도 하였고, 하버드에 입학하기 전, 토플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또한 하버드에서 요하는 제2 외국어 연수를 위해 독일에서도 1년간 공부한 이력도 있으니 범어를 비롯 스님은 6~7개 국의 언어실력을 갖추었다.

불교학자로서 외국어의 능숙한 구사는 외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불교학도 그 인접학문이나 응용불교 차원에서 외국어에 대한 소용가치는 절실히 필요하다. 한문권의 연구를 뛰어넘어 범어나 팔리어에 대한 불학연구 차원에서도 외국어는 절대적인데 수 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일미스님에게 불교학자로서 능력과 노력을 갖추었다고 여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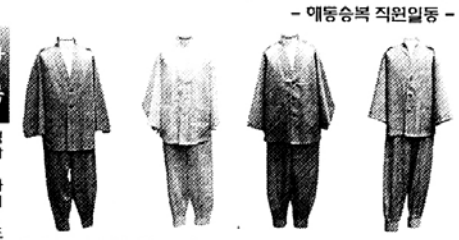
공부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스님은 동대 스님들 모임인 석림회 부회장 소임까지 맡아 할 정도로 승려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분명히 찾아갈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수행자다.

한국에서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불상 봉안이나 법당 건립 불사에는 적극적이다. 그러나 인재불사에는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미스님과 같은 불교학자를 제대로 키운다면 천불(千佛)을 봉안하고 대불(大佛)을 모신 만큼의 큰 불사가 이룩될 것이라 확신한다. 스님이 후에 이루어 낼 업적은 곧 불교의 발전을 의미하니까 말이다.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동승복 직원일동 -



■ 구김없이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마 ₩150,000
■ 모달사 ₩150,000
■ 모직 ₩130,000
■ 순면(무늬있는 먹물) ₩130,000



■ 마 ₩130,000
■ 모달사 ₩140,000
■ 모직 ₩120,000

■ 마 ₩130,000
■ 모달사 ₩130,000
■ 모직 ₩110,000

₩5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 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5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 금세기 세계최초 공개 전세계 비만인 고민 끝!

비만완전탈출!! 전수생 한정 모집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대 상
◆ 해외이민 희망자
◆ 先見之明의 지혜를 가지신 남·여
◆ 인기폭발 비만 및 피부미용샵 운영 예정자

강좌개설 속성반(부산교육장에서만)

교육과정
◆ 부작용, 요요현상도 없다(음식을 가릴필요가 없다)
◆ 체계화된 학문으로 약이나 氣등의 도움이 없다
◆ 6일간의 속효조정법 최고의 고등본능 방법술 전수
◆ 십이종 지능과 십이종 의식 구조학의 고난도핵융합방법 전수

본 학문을 전수 받고 난 후 당신은 아래와 같은 능력자가 된다!

1. 배운대로 하면 된다! (살찌게 하는 DNA를 교정)
2. 피부가 더욱 아름다워진다!
3. 하루 1~2시간 6일을 조정해주면 된다!
4. 6일이후부터 비만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자기본래의 표준 골격을 되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자동배출하게된다. 보통비만은 물론,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인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입게 된다. (기적같은 현실이며 배워두면 성공한다.)
5. 부작용, 요요현상 없다.

※ 종교와는 무관하며 이법을 세상에 보급할 때가 되었으므로 희망하는 분 한정 접수함. 해외 이민 희망자는 이법을 전수 받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인연 닿는 분은 필히 배워두시 길)

문 의 처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051) 808-1315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硏究學會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硏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종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海水觀世音菩薩像
인연있는 분을 찾습니다



海水觀音菩薩像 諸元

종 류	높이	(자)	가로	세로
해수관음보살石像	360	12		
TOTAL(1)		12		
2단 연화	63	2.1		
8각 연화좌대 발침석	26	0.8		
4각 발침석	49	1.6	180	180
TOTAL(1)		4		
GRAND TPTAL		16		
4각 지반 기초석	20		347	347

연락처 011)752-0324